

‘우한 폐렴’ 확산세 노심초사

편의점 마스크 등 매출 ↑
병원도 방문객 인원 제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화권 관광객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도내 주요 의료기관을 선별진료소로 지정하는 등 우한 폐렴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지역 ‘우한 폐렴’ 공포 확산 =우리나라에서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보건당국에서 확인 결과, 해당 소문들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으나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로 도내 약국·편의점 등에서는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

도내 한 약국 관계자는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재고가 일찍 소진돼 못 팔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3~4배 가량 더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도 편의점 관계자에 따르면 설연휴기간인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상품 매출 분석결과 전년 대비 마스크는 6배, 손세정제는 5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전국 가맹점에 마스크 착용 공고를 내리는 한편 제주와 서울 등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은 본사에



도내 한 약국에 다양한 마스크가 진열되어 있다.

이상국기자

서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동안 관광지를 찾았다가 중화권 외국인 관광객과 마주친 일부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민 윤모(32)씨는 “설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관광지를 찾았는데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다”며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까봐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걱정했다.

▶노인전문·의료기관 등 우한 폐렴 차단 초긴장=도내 병원과 양로원 등 일부 노인전문·의료기관에서는 설 연휴 전 보호자를 대상으로 우한 폐렴 전파 차단을 위해 면회객 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도내 한 양로원에서는 보호자들이 면회를 취약한 노인 환자들이 머무는 병실로 올라가지 않고 양로원 직원들이 환자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으로 면회가 진행됐다. 특히 일부 병

원에서는 주 출입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입구를 막아 통제하는 한편, 입구에는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을 비치해 방문객에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서귀포열린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도내 7개 의료기관을 선별진료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도·보건소·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인원 중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태가 경미한 환자의 경우 도나 보건소 등에서 담당공무원 등을 배치해 능동감시를 진행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우한 폐렴’ 진단키트 8명분만 남았다

“도, 반쪽 대응” 비난 목소리 비등… 도 “일본 방문 확보 할 것”

제주서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진단하는 ‘키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제주도의 대책은 ‘반쪽대응’이라는 지적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없는 제주는 우한 폐렴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 키트를 이용해 진행하며, 이후 키트를 전달 받은 질병관리본부에 최종 확진 판정을 내린다.

제주에서는 2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결혼이주여성 중국인 A(50)씨가 인후통과 기침, 발열 증상을 일으켜 키트로 검사를 받

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17일 중국 우한에서 비자 발급 절차로 2~3시간 머물렀다. 이어 28일 새벽 0시10분쯤에도 도내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국인 관광객 B(24·광저우)씨가 발열, 기침, 두통, 콧물, 가래 증상을 보이면서 유증상자로 지정돼 키트로 검사가 진행됐지만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제주에 남은 진단 키트가 ‘8명분’ 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상 유증상자에게는 2개의 키트를 사용하는데, 이미 2명분이 소진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한 진단 키트가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8명분은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29일 항공기를 이용해 질병관리본부를 방문, 키트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물량은 당일 질병관리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제주에서 키트가 부족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8일 제주국제공항과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 인력과 물자 등 필요 물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및 세제 사용, 예방 수칙 준수로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매화꽃향 풍기는 겨울 28일 제주시 한림공원 매화정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매화꽃향을 맡으며 제주의 겨울을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개학 앞둔 도내 각급학교 ‘긴장’

도교육청 ‘개학 시기 전파 가능성 예의주시’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며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지속돼 도내 전파 가능성이 커질 경우 휴업, 휴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학생 감염병 대책반’을 확대 운영한다. 기존 교육국장

이 맡던 대책반장은 부교육감이 맡고 감염병 발생 상황과 단계별로 역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인 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개학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주(28~31일)를 기준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317곳 중 153곳이 개학하고, 2월 10일 이후엔 그 수가 161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도교육청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된 중국 우한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28일 현재까지 중국 우한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은 없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만, 중국 방문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우한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도내 학교 개학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학교별로 예정된 학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돼 제주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경우 휴업, 휴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도, 부패방지 평가 1단계 하락 ‘2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한 2등급으로 분류됐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1등급을 받았고, 2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제주를 포함해 광주, 대구 등 6곳이

있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4등급으로 분류됐다. 전년보다는 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각각 2등급과 3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해 각 기관을 단체 중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1등급을 받았고, 2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제주를 포함해 광주, 대구 등 6곳이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독자제보 750-2232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대륙과 함께!

감굴 전정목 파쇄와 제주지형에 강한 맞춤형 파쇄기!!

휴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동가위로써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1회 충전 5일 이상 사용 **운전 조작이 너무 쉽다**

강력한 힘! 손쉬운 운전!!

대륙종합농기계 확장이전 장소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방 방향) 판매/AS문의 064) 767-3430

14TRC-HS (16마력)
10TRC-H (9.5마력)
13TRC-H (14마력)
15CRS (18마력)
MX-E350 (전동형)
MX-500DL (케도형 덩크+리프트)
MX-500 (케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FELCO 801 최대 절단경 30mm
FELCO 811 최대 절단경 42mm
FELCO 820 최대 절단경 45mm

전기종 본체를 열지 않고도 가위날 교체 가능
전기종 정부지원(보조금) 농협용자 대상기종

남원1 300m
위미농협 주유소
효돈삼거리
예전위치